



오성회소식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會長：朴載誠

發行人：高承萬

編輯人：朴雄鎮

發行：五星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非賣品)

任 期 를 마 치 면 서

朴 載 誠 (2期)

任기를 마치면서
五星會의 重要性和 活性化에 對해서 昨年에 就任人事狀에서 言及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란 탓인지 끝내어나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바보의 뒤통수말이라 할까요.
꿈이 많은 사람은 理想이 높은 대신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消極的이고 利己的이기 쉽다는 옛말과 같이

同門出身 參謀總長님 全員 巨額을 寄附해 주셨고, 各期 副會長 및 理事 그리고 期別 基金을 많이 協助해 주신 總分에 五星會 活性化에 많은 힘이 된 것 紙面을 통해서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基金 全額 19,413,000원 고스란히 長期預金했습니다. 運營細則도 없이 常務總에서 運營하여 未熟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諒해바랍니다.

五星會 名稱에 관하여
二期士官의 入校는 6.25 動亂이 일어나던 1950년 12월末, 1.4後退 直前으로 戰時의 混亂, 無秩序, 飢饉狀態로 傳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時期이었습니다.

二期士官이 1學年에 入校하여 2·3·4期로 처음 生徒自治會를 만들고 그 名稱을 五星會로 하였습니다. 當時 三軍 最高階級이 中將이었을 時節로 우리는 大將인 四星將軍도 아니고 五星將軍이 되어 나라를 걱정하는 偉대한 일꾼이 되었다고 크나큰 希望을 갖고 이와같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五星 卽, 宇宙가 아닌가, 하늘을 征服하고 하늘에 사는 우리가 五星 卽, 宇宙를 征服한다는 큰 뜻도 있었습니다. 요사이 宇宙征服이라는 말 대신에 宇宙를 생각한다는 말로 바뀌어 쓰고 있습니다.

그 當時 海軍士官學校 玉浦會와 相互 交流도 있었습니다. 9.28收復, 서울奪還 直後 市民들의 民心安定을 爲하여 體育大會를 計劃하였고 空士와 海士의 럭비, 축구, 器械體操大會를 서울 運動場에서 開催하였는데, 이 大會가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의 嚆矢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처음 이 大會에 陸士도 參與시킬 計劃으로 陸士 11期에 故鄉後輩들이 많은 本人이 當時 鎮海에 있던 陸

士에 參加勸誘를 위해 直接 訪問하였습니다. 그러나 陸士側에서 大會에 參加할 11期가 어리다고 運動參加를 拒否하여 結局 空士와 海士만의 體育大會를 開催하였던 것입니다. 그 後 海士와는 卒業 入校時 相互訪問等 交流가 頻繁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現在 우리 보라매會에 相應하는 海軍의 모임은 玉浦會로 稱하며 旺盛한 活動과 많은 會費도 募金되어 있으며 海士 7期가 會長을 맡고 있습니다.

五星會의 어제와 오늘
空士生徒 自治會를 主管하던 二期士官이 一年도 못되어 飛行訓練, 特技訓練 등의 바쁜 訓練日程으로 三期士官 中心으로 運營되고, 二期는 卒業準備委員會 同期生會 中心으로 活動하게 되었습니다.
三期는 前 國會議長이었던 李萬燮生徒가 會長을 맡아 6個月程度 運營하던 中 亂動이라는 罪目으로 모임이 解散되었으며 關係者 몇 사람이 退校되는 등 犧牲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後 二期生이 中尉時節 다시 二期生이 中心이 되어 大邱基地 學術講堂에서 各地에 있는 先輩, 後輩들을 모시고 空士出身 同門모임인 五星會가 再次 發足되었습니다. 當時 士官學校 生徒隊長 金重寶少領이 會長으로 選出되었으며 李周杓先輩가

會則 成案에 많은 寄與를 한 것으로 記憶됩니다. 二次 同窓會 解散은 4.19 後였으며, 三次 同窓會 結成은 朴政權이 들어선 後, 大方洞에 位置한 空軍士官學校 講堂에서 二期生이 中心이 되어 만들어서 一期 千永垈大領이 會長으로 推戴되었습니다. 그 後 많은 同門들의 呼應으로 적지않은 會費 募金도 이루어졌고 金永煥, 白萬吉, 宋宗周 會長 時節을 맞게 되었으나, 朴政權 末期 維新時대에 三次解散이라는 悲運을 맞게 되었습니다.

四次 同窓會 結成은 一期 金正禧 同期會長 時節에 모임을 가지려 애를 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孫周鎭 一期 同期會長 時節에 二期 會長인 本人, 三期會長 沈璋燮, 四期會長 韓英奎, 五期會長 申鳳林, 六期會長 全春雨が 모여 1992년 6월에 五星會를 再次 再建하게 되었습니다. 一期 孫周鎭 會長이 五星會 會長으로 選出되었고, 그 後 二期인 本人이 會長職을 繼承받았으나 現在에 이르러 된 것입니다. 그동안 美國에 있는 同門들은 繼續 五星會를 運營하였으며 活潑한 活動을 持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三次 同窓會 結成 以後 解散時까지 積立된 基金이 700만원 程度이었으나 同窓

會가 解散될 當時 基金만은 長期積金에 入金하였다면 現在 많은 基金을 確保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當時 그 基金은 士官生徒 隊長에게 引繼했다고 하나 所在確認이 안되어 哀惜할 따름입니다.

- 바라건대
1. 무엇보다 基金(寄附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2. 會則 補充 修訂이 必要합니다.
 3. 運營細則이 確定되어야 하고,
 4. 會費徵收가 必須的입니다.
 5. 當分은 時間과 財力과 誠意가 있는 사람이 會長이 되어 五星會에 奉仕를 해야 하고, 各期生會가 잘 組織되고 있으니 各期生別 連絡고리 役割이 重要하며, 會員의 處事에 많은 誠意를 보이며, 對外活動은 많지 않으니 同窓會 살림살이에 좀더 注力해야 될 것입니다.
 6. 會紙도 發刊해야 했고(原稿가 들어오지 않음),
 7. 會員消息도 알려야 했고,
 8. 每年 士官學校 卒業時, 生徒들이 同期生 團結에 가장 많이 힘썼던 사람을 推選받아 五星會에서 褒賞도 해야 했고,
 9. 期生 責任制로서, 二期가 끝났으니 三期가 一年間 全會員 責任지고 基金造成을 하면 五星會 運營은 達成되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四十年만에 처음 同窓會 事務所도 갖게 되었습니다. 現 參謀總長 金鴻來 將軍의 積極的인 協助과 同門出身 總長님들과 先輩님들 空士二期 여러분 그리고 많은 後輩 同門들의 積極的인 協同으로 本人의 一年 任期 會長職을 無事히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現 士官學校 뒷산에 故人이 된 190餘 同門들의 忠魂塔을 세우려 했는데 在任期間中 事業推進이 如意치 않아 恨이 되나 後輩 여러분들이 반드시 推進하라 믿고 맡겼습니다. 同窓會가 세번 解散당하고 네 번째 모였으니 五星會史가 五十年 韓國史의 縮小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解散을 設어아 하겠으며, 어느 團體에서도 政務의 癖을 품기란 쉽지가 않으나 1, 2, 3기의 諸君은 既得權을 確保하기 위해 많은 努力을 해 주셨으며,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同窓會의 앞날은 밝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同窓會에도 흔히 있는 "네가 뭘데"라는 消極的인 姿勢가 全體의 80%를 占하고 있는 心理的 狀態下에서 욕을 먹더라도 韓國에 단 하나 밖에 없는 空士의 傳統인 하늘에 살고 하늘에서 죽는다는 名譽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워낙 긴 歲月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表現하지나 頭緒가 없었습니다. 空軍과 五星會의 發展 및 同門 여러분의 健勝을 빕니다.

會長 任期를 마친 朴載誠



五星會 消息紙의 創刊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空軍士官學校 校長

空軍中將 李 光 學

1949年 金浦에서 첫 발을 내딛은 祖國 領空守護의 聖堂인 空軍士官學校가 이제 不惑의 나이를 넘기고 그 동안 숱한 人材들을 養成, 輩出하여 空軍의 發展과 國家安保의 굳건한 礎石이 되어왔습니다. 祖國이 黎卵의 危機에 처했을 때 나라사라의 뜨거운 忠情을 안고, 全國 各地의 젊은이들이 祖國의 하늘을 지키기 爲해 空軍士官生徒로 入校하여 드넓고 푸른 蒼空에 絶음을 바치므로 사라졌던 當校의 歷史와 傳統



은 半世紀의 歲月을 지나면서 이곳 宙武臺에서 그 脈을 綿綿히 이어가고 있

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도 秀麗한 祖國山河를 지키는 愛情과 熱情을 平生동안 가슴에 품고 渾身の 努力을 다해 온 우리 宙武人들의 矜持는 지난간 歲月속에 褪色되지 않고 1期에서부터 47期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血管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確信합니다.

最近의 國內情勢는 北韓의 核問題를 둘러싸고 對話와 妥協의 家園氣가 造成되는 듯하나, 그 表面에는 如前히 戰爭의 危機가 常存함을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國家安保의 最一線에 서 있는 우리 軍으로서 是 우리 나라가 世界속의 中心國家로 跳躍할 수 있도록 確固한 安保態勢의 確立과 對敵必勝의 信心이 強調되어 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周知하듯 '하늘을 支配한다'는 者가 戰爭을 勝利한다'는 點에서 祖國 領空守護의 艱辛스러운 任務를 堪

當하기 爲해 젊은을 불사른 우리 宙武人들은 現役에 있든지 軍門을 떠나 있든지간에 21世紀 一流國家로 雄飛하는 우리나라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防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位置에서든지 護國의 干城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祖國과 하늘에 바친다'는 當校의 敎訓이 핵심은 過去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우리 모두가 活動하고 있는 삶의 里程表가 되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眞理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의 五星會 消息紙 發刊을 通해 全國 各地와 여러 分野에서 活躍하고 있는 同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宙武臺에 첫걸음을 내딛을 때를 想起시켜 주며, 以後 空軍에서 奮 闘한 발과 努力을 되새겨 줌으로써 삶의 活力素가 되어주는 勿論 愛國忠情

을 북돋는 契機가 되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아울러 여러 同門들의 살아가는 아름답고 健康한 이야기들이 紹介되어 空軍과 母校의 多様한 消息을 담아 永遠한 空軍家族, 宙武人으로 矜持와 自負心을 심어주시기를 期待합니다. 또한 五星會가 既存의 空軍家族들의 모임인 보라매會 等 여러 親睦團體들과 緊密한 紐帶關係를 維持함으로써 空軍의 一員으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해 낼 수 있게 되기를 眞心으로 祈願하며,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所重하다'는 眞理를 다시 한번 確認하는 所重한 모임이 되기를 眞心으로 期待합니다. 向後 五星會의 發展趣旨에 符合하는 實質적인 活動을 期待하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五星會 消息紙의 無窮한 發展과 함께 先輩님 및 後輩, 그리고 後輩 여러분들의 家內 平安과 健勝을 祈願드립니다.

21C 東洋文學圈 向上과 韓國文學의 先導性

1. 序 論
2. 東洋文學 向上의 展望性
3. 主題의 當爲性
4. 東洋文學圈에 對한 示範의 方向
5. 文學장르의 效用的 影響

1. 序 論

世界文學은 半島에서 태어나 大陸을 거쳐 半島文化의 發展에서 필요해졌다. 그리스 文學에서부터 유럽을 거쳐 다시 半島文化 속에서 燦爛한 結晶을 맺게 된 文化史의 敎訓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21C에 是 半島文學 全盛時代가 오고 文學도 向上될 것이 必然이다. 스펅클러의 豫言대로 '西洋文明의 沒落'은 이미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며 人倫의 悖倫兒들이 登場하고 있어 人類의 敵對視를 받고 있다. 半島文學은 亞細亞를 中心으로 再開될 때 韓國이 主動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토인비가 '歷史研究'에서 豫言한 것처럼 앞으로의 世界에서는 새로운 高等宗教와 文化가 出現할 것임은 當然之事이다. 20世紀까지의 宗教文化는 거의가 腐敗했기 때문이다. 지금 西洋文化 文明은 斜陽길에 처했으며 宗教, 文化가 墮落 추세에 놓여졌다. 極端의 利己主義로 轉落한 西洋文化의 非人間的 性格과 1992年의 EC統合 統獨의 再侵略의 危險性等 世界文化에 미칠 惡影響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간다. 文學主題意識으로서 亞細亞의 謙讓性과 은근으로 隱君子의 人

間性이 두드러진 것과는 對照의 으로 過慾, 利己主義의 表出的 進就의 人 面이 強하고 包括의 이기보다는 分析的인 西洋氣質은 世紀末의 混沌과 分裂를 鎮定시킬 수 없다. 이와같은 東西의 氣質 다음으로는 各民族의 傳統과 歷史性의 內在의 特性과 生活環境의 客觀的 影響의 差異가 크게 作用된다.

東洋文學圈의 範圍는 韓國, 中國, 러시아, 日本, 其他國家들이지만 文學圈의 資格은 其他國家를 除外한 韓·中·러·日로 形成될 것이다.

2. 東洋文學 向上의 展望性 「經綸 先賢의 主體性」

韓國과 中國은 悠久한 歷史를 波瀾萬丈의 試鍊으로 일찍 周邊國家들의 侵略을 물리쳐 온 鍛鍊된 民族國家로서 先賢性이 두드러졌다. 歷史의 거울인 文學은 그래서 豊富한 作品素材를 所有하고 있다. 中國大陸의 英雄割據 戰雲이 惹起한 興亡 盛衰의 悲運에 比하여 外役 重疊되었다. 우리 겨레의 歷史의 特性은 意志力和 團結力의 模範이 되었던 優越한 民族力이 있어 能히 美滿한 東洋文學圈을 앞에서 引導할 수 있는 力量을 지니고 있다. 모든 文學作品은 어떤 主題거나 民族性을 나타

朴 雄 鎭(4期)

내는 것이어서 우리의 文學은 21C 새로운 時代의 共存 共榮圈의 主體의 核心으로 創出되어 겨레를 위해 披發할 새時代 모형과 人間性을 理想의 으로 定立하고 表出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作品의 主題方向은 優先은 民族文學으로서 民族의 歷史性과 當爲性을 包括의 으로 解決하려는 意識을 앞세워 文學性을 굳히 나가야 한다. 21C 前後로 다가 是 南北統一의 成就是 民族團合의 急先務로 시작하여 周邊國家間의 親善, 友愛, 相互協助, 共榮의 理想을 實現시키기 위한 深奧한 主題를 完成시키는 創作態度가 우리에게 切實히 要求된다.

3. 主題의 當爲性

첫째로 21C를 展望하며 民族統一의 成就是 現實의 民族團合의 課題로 하는 民族團合의 主題를 作品이 함인 文學創作의 使命이므로 分裂된 國土, 離散家族의 苦難과 念願을 中心으로 統一될 날을 豫測하는 픽션의 模範의 創出이 緊要한 歷史의 當爲가 되어진다.

① 統一의 展望과 對策
南北高位會談의 再開, 輕水爐의 韓國型 決定으로 北 美會談의 成果保障, 南北間會談의 實現으로 南北貿易 및 北韓開發의 우리 援助, 國際스포츠 南北單一팀 出戰 等의 成果 等を 바탕으로 한 現歷史 過程에서 統

一을 위한 作品性은 더욱 擴大되어질 수 있다. 作品 創作面에서 이러한 理解의 心理的 傾向을 希望의 으로 歡迎하는 和合의 反影이 濃厚하게 表出되던 相互間에 統一의 念願은 加速化되어 北韓이 呼應할 것이므로 我志를 進히 굳히도록 信賴와 協助의 인 交流의 成果를 作品主題로 굳건히 捻出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同質性의 實現

南北分斷 長期間 동안에 北韓은 소련·中國과의 親善修交國이 되어 南北韓 同族間에 對한 關心과 民族愛의 情緒를 維持하지 못하고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支配를 받아 思考의 創作的 面에서 우리와는 전혀 反對 立場을 固守함으로써 眞正한 文學作品 創作이 아닌 金日成 主思派의 傾向을 維持하여 왔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文學創作을 通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世界觀을 갖도록 이끌어 내어줘야 할 것이다.

政治的 解氷期를 맞이하여 韓·蘇 頂上會談의 3차례 實現, 고르바초프의 訪韓, 訪中으로 解氷은 巨大한 成果를 이루어졌다. 이러한 客觀的 무드 위에서 統一한 原理의 政策은 北韓을 說得시켜 民族同質性의 實現에 政策의 重點을 設定하여 나아가 最近 北韓의 輕水爐 設置에서 韓國型을 採擇하도록 우리와 美國側이 努力하는 段階에서 不

適에 그 目的이 實現되고 物質的 協助과 北韓開發에 우리 企業 參加까지 實現되어 간다면 同質性 回復은 統一을 前提로 하는 政策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 라 믿는다. 그러한 同質性 으로써 南北文學은 時間이 흐를수록 民族의 試鍊期에 對한 文學作品이 어느 東洋文學보다 豊富한 主題가 되어 注目의 對象이 되어질 것이어서 우리 韓國文學의 役割이 무엇보다도 先導의 立場을 守衛할 것이다.

③ 同族 共感의 強化

越北, 拉北文人들은 그동안 例外없이 이데올로기 中心이었지만 民族同質性이 實現되면 그들의 創作態度도 우리와 같은 純粹한 民族感情을 內包하게 될 것이다. 因此하여 우리 民族文學은 世界化 속에서 東洋圈에서 가장 앞서라고 믿는다.

④ 憎惡心을 愛情으로 解氷하는 길

우리를 美帝國主義 奴隸로 만 錯覺해 온 北韓住民의 우리에 對한 憎惡心을 同族愛로 녹일 수 있는 主題가 우리 손에서 힘차게 創作되어 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文學主題는 매우 豊富하다.

良友堂刊 『世界文學속의 韓國(全10卷)』 속에는 外國人이 韓國을 主題로 한 作品이 100여편이 실려 있다. 이는 試鍊, 團結, 愛國, 愛國心이 別히 強한 우리 民族歷史에 對한 關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趨勢로 보아 北韓이 아무리 反對하더라도 우리쪽이 꾸준한 忍耐과 愛情과 協調를 繼續한다면 참차엔 열어붙은 感情의 열음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 條件은 우리 의 作品성이 優位를 차지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

人間은 영혼을 사로잡아 오던 바깥바람이 잠들면 제

(2면에 이음)

영혼의 音聲에 귀를 솔깃하게 된다. 純粹한 思考力의 能力으로서 眞理, 眞相과 虛相을 分別하여 찰할 術을 判斷하고 悔改하여 反作用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忍耐와 苦痛을 甘受하는 寬大한 度量으로 우리와 融合할 北韓의 時機를 기다려서 協同을 이어나가면 至誠이면 感天의 뜨거운 民族愛가 實現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 客觀的인 好期로써 러시아·中國과 其他 東歐 共產國家가 民主國家體制로 改編하여 우리나라와 外交關係를 緊密히 맺어나가는 오늘로부터 21C에는 더욱 그 領域이 擴大되어 우리와 努力의 成果가 그들을 先導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經濟界의 動向도 매우 有利하게 進展해가고 있다.

'88年 12月 25日 朝鮮日報의 北韓·鄭周永氏 招聘의 記事로부터 民間人 交流의 문은 활짝 열렸고 最近에 其他 企業體 代表들이 北韓을 訪問 經濟協同協約을 締結하고 있어 그 앞길은 더욱 光明을 가져오고 있다. 金剛山 共同開發計劃의 合議, 소련이 우리에게 要請한 시베리아 共同開發案 受諾 等의 經濟的 協同體의 構成, 宗教人 사랑의 살 보네기가 이미 成功의 이었고, 北韓 金剛山 貿易과 의 輸出契約 等도 經濟協同性格으로 되어진 解氷의 햇빛일 수 있다. 爲政者에게 尊 衡擊으로는 後世人 前鞭豫防, 謀免에 對한 深層心理의 刺戟 中國, 小 國의 對北韓 政策變化 韓國 單獨 UN加入의 實現可能性을 들 수 있어 頂上의 心理의 解氷期도 앞당겨져 지리라 본다. 民族感情의 眞實感을 共感帶로 形成시키기 爲해서 韓國文學은 人間愛, 民族愛의 關心을 들 들여 北韓住民 앞에 公開할 때 眞正한 自我發見, 自我主張을 鼓舞하는 人間性을 回復시키게 될 것이다.

⑤ 開放 變化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北韓의 現情勢 바야흐로 實現되고 있는 國際的 輿論 及 協力과 政治 經濟의 安全性을 다져나 가려고 애쓰는 北韓은 現在 政策의 努力과 核施設의 平和 的 解決 및 輕水爐 施設을 위한 北美會談의 合意의 解決에서 南北關係는 相互 信賴와 協同을 通하여 好轉 될 것임을 明白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멀지 않은 將來에 國內安定을 爲하 여 確固한 政策을 確保하며 世界化 물결속에서 國際平和 爲 爲 努力하는 全世界의 흐름속에서 孤立을 自招 하지 않도록 世界輿論을 肯定 的으로 受容함으로써 그들 도 어차고 開放과 變化를 通하여 政權을 維持하며 經濟 的 援助 等의 互惠의 南 韓의 勸誘를 好意의 으로 반 아들여 그 社會을 開放하며 民主主義의 으로 變化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⑥ 鄉愁를 愛戀心으로 바

꾸며 失鄉民의 鄉愁가 투고 온 山河를 그리워하고, 헤어진 父母兄弟의 뒷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논문에서부터 故鄉에 對한 깊은 愛情으로 發展하여 共感을 자아내도록 하는 作品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作品을 接할 때 그들은 얼어붙은 이데올로 기의 氷山에서 풀려나 自由로 은 生活의 봄바다 있는 地 平으로 甦出하려는 意慾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갈혀 온 삼이 그들 情을 깨닫고 뒤우치면 自由의 情에 스스로 안기고 싶 어하므로 우리는 鄉愁에 對한 無限한 愛戀心을 불태워 가는 心情을 끊임없이 作品 化하여 간다.

⑦ 自由의 眞理解明으로 說得시켜서 自由를 모르는 北韓住民 에게 自由의 참모습을 抑壓 된 情과 對照시켜서 自由인 是 함이 죽음이라는 苦行을 깨닫게 한다. 人間本能인 自由를 바라는 心情에 불꽃 을 붙여주는 作品을 많이 創作하여 自由를 찾는 心情 을 活性化시켜야 한다.

4. 東洋文學圈에 對한 示範 的 方向

① 中國大陸에 對한 對策 悠久한 歷史속에서 英雄 割據時代와 春秋時代의 風 雲을 만끽한 中國人의 亞細 亞의 性格은 政治風土의 無

은갖 試練과 風雲을 克服하 고 헤쳐 온 우리겨레의 精神 的인 底力에 그들이 感歎 하며 따라올 것이다. 이런 바탕을 굳혀주기 爲해서 우리 的 文學作品의 創作活 動은 이런 對象에 對處하는 意識의 自信과 實踐이 要請 된다. 中國의 新 世代에게 는 小 國의 影響에서 벗어난 自 立의 인 國力과 自由 經濟 制度에 對한 同情心이 크 게 作用하고 있으므로 여기 에 對한 우리 的 合理的 努力 이 切實히 要請된다.

② 소련 이데올로기의 征服 的인 政治體制 改革으로 共產 黨政權 解體와 自由經濟制 度 導入 等은 이미 이데올로 기를 征服하고 있다. 이런 一聯의 關係로 소·中은 北韓 開放을 促求하고 있고 韓半島 平和回復를 實現할 에 多角的인 協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소련은 우리나라 的 經濟先進性을 導入하 려는 念願을 實現하려 하므로 韓國의 安定이 絕對不 可缺로 되어 있어 積極協 同하고 있다.

宗教 斷絶이던 소련에 教會 가 再開되어 信仰福音이 傳播되어질 自由化의 世 界人類 半數를 묶어 온 이데 올로기의 마귀는 드디어 自由 앞에 征服되어진 것이다.

③ 東洋文學圈에 對한 對策 其他 東洋國家들의 여러

學은 意志力이 살아있다. 忍苦와 抵抗으로 이어온 우리 的 文學는 아시아·太 平洋 沿岸 地域의 어느 國 民보다도 일찍이 人間이 經 驗해야 할 惡化된 人間條件 을 克服해 온 底力을 지니 고 있는 優秀한 힘 이 있다.

人生苦라는 文學의 至上主 題가 우리文學의 本領이고 보면 어느나라의 그것보다도 深奧하고, 切實한 삶의 記錄 이라는 條件만으로도 이 地 域中의 示範的인 先驅의 性能 을 確保한 것이다.

소련의 枯渴된 感性이나 中國의 閉鎖된 封建的 儒教 的 束縛이나 美國같이 富에 사로잡힌 墮落된 人倫이나 海洋國家들의 奸商謀利의 輕 薄性이 없이 悠久한 歷史의 燦爛한 꽃을 피어온 敬 天愛人 思想은 精神的 信仰 的 的인 터진것을 앞세운 殺身精神 的 的인 境地와 敬拜相助의 德性 을 實踐하고 相扶相助의 心 性이 犧牲과 同情하는 博愛 精神의 生存속에서 安住할 줄 아는 平和 尊正의 聖者의 人間性을 維持해 왔었다. 堅固한 信念의 생이 깊은 지 리 이데올로기나 外來風潮 에 支配되지 않고 血統中心 人 土俗宗教 위에 빛나는 家訓이 骨肉이 되어진 몸이 어서 肉身의 衝動이나 虛妄 한 바깥바람의 慾心이 없이 清廉하여 간난속에 安住하 는 德을 쌓았고 無數한 外 役受難으로 시달리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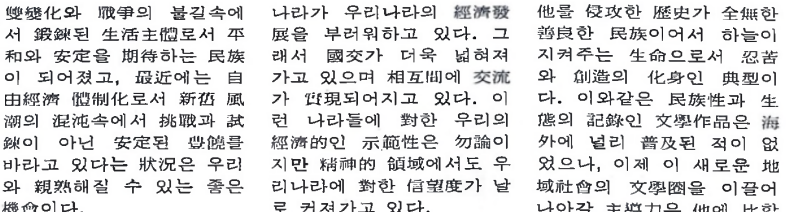
亂世에 秩序를 앞세우고 治世 에 和同團結하여 수 많은 難關을 물리쳐왔다. 內房 歌辭 等에서도 女人의 纖細 하고 영특한 心情과 활동한 知慧를 수놓았고 悲痛한 環境 속에서도 節節을 死守하 는 婦德을 實踐하였다.

忠孝의 主題는 世界 어느 作品보다도 眞實하고 確固 하여 他의 귀감이 되었다. 近代文明의 흐름을 받 아들인 時期에는 開化의 터 전을 굳혀놓았고, 現代思想 에 接해서는 率先하여 文明 水準을 確保하는 자리를 굳 었었다. 김동인의 眞存의 作家意識은 人間存在의 位 相을 解明하였고, 春濤의 사람 的 實踐은 휴머니즘의 畵을 그려주었다. 新文學時 期로부터 峇터은 人間存在 에 對한 該博한 解明은 가 장 發展된 典型性을 創造해 내었다.

사단에서 송강 고산 等의 人生觀은 忠孝 自然主義 的 的인 境地를 일찍이 開拓해 놓았고 民族魂의 化身인 윤동주, 이육사, 이상화의 시세계는 겨레의 굳은 意志力의 標本 이다. 우리 的 文學은 開化, 革新 等의 時代思潮에 對발 反 呼應 受容함으로써 人間 生存의 變化無變한 樣相을 哲學의 存在性 文學의 으로 부각 시켜 存在性 原理와 方法論 을 깨우쳐 주었다.

더욱이 1988年 韓國 PEN 大會는 우리 文學을 世界로 普及시킨 契機였었다. 이제 52次 世界 서울 PEN大會는 소·中을 比동한 思想의 敵 性國家를 爲始한 未修交 文 인들이 많이 參加하여 올림픽 이 열리는 땅에서 開催되 어 調期的 成果를 거두었던 結果로는 文藝復興에 못지않 은 것이었다. 특히 소련이 그 機會에 世界 PEN의 入會 國이 된 것만으로도 世界 平和에 寄與한 바가 크다.

우리 文學이 지금 프랑스 을 比동한 소련·中國 其他 東歐 유럽에서 翻譯作業이 旺盛해 감은 未曾有의 證據 이 하겠다. 우리 的 文學이 이렇게 世界化의 길을 擴散 하는 過程에서 北韓도 不道 에 交流되어질 可能性을 믿 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平和의 南北統一이 成就되는 歷史 앞에서 文學은 우리 的 發展된 國力과 向上된 民族 典型을 널리 普及시켜 겨레 的 矜持를 더 다지게 하고, 世界人으로서 하여금 우리나라 的 民族의 優越性을 認識하 면서 和解 協助 供與의 歷史 를 즐기게 창조해 나갈 기 틀을 마련할 使命을 完遂함 이 東洋文學圈을 形成하는 우리 文學의 方向이며 生理 가 되어져야 한다. 文學은 人生經驗의 産物이다. 우리 겨레가 體驗한 苦難의 歷史 는 이 地域 어느 나라보다 거칠었고 어려운 環境에 對 한 對應 克服으로 새겨진 記 의 歷史였다. 文學의 主權性 은 이렇게 豐富한 人生苦의 勝利로 얻어진 文學의 典型 性에서 그 資格을 認定받 을 수 있다. 우리 的 文學典型은 이러한 使命의 完遂에서 能 한 東洋文學圈을 形成해 나 갈 勇猛한 自我世界를 守 護함에 全力을 기울였다.



雙變化와 戰爭의 불길속에서 鍛鍊된 生活主體로서 平和 와 安定을 期待하는 民族 이 되어졌고, 最近에는 自由 經濟 體制化로서 新舊 風 潮의 混沌속에서 挑戰과 試 練이 아닌 安定된 豊饒를 바라고 있다는 狀況은 우리 와 親熟해질 수 있는 좋은 機會이다.

5. 文學장르의 効用的 影響

文學은 精神力에 對한 唯一 한 導入體이며 그 效果는 莫大하다. 일찍이 우리 文學은 逼迫에 對한 抗拒와 不義에 對抗하는 肉體的인 對應의 性能을 떨쳐왔다. 그 理由는 文學性이 現實을 反映한 '恨의 文學'이었기 때문이다. 억울하고 悲慘한 環境에서 人生苦를 忍苦, 抵抗의 兩面으로 모두 消化 시켜 온 受難民族의 先驗的 인 歷史의 主人公인 加담에 서다. 忍苦의 文學의 強固性 이 굳혀져 있다. 抵抗文

他를 侵攻한 歷史가 全無한 善良한 民族이어서 하늘이 지켜주는 生命으로서 忍苦 와 創造의 化身인 典型이다. 이와같은 民族性과 生 態의 記錄인 文學作品은 海 外에 널리 普及된 적이 없 었으나, 이제 이 새로운 地 域社會의 文學圈을 이끌어 나가갈 主權力은 他에 比할 바 없이 優越하다. 일찍이 先人들의 作品에서 나타났 던 多情多感한 情緒가 비 단결같이 곱고 밝으며 悲慮 는 깊은 觀照와 覺醒이 많은 豫言을 남겼으며 肺臟을 摧 殘하는 洞察力은 眞理探究 解 明과 眞實具顯에 先導의 이 었다.

殺身成仁의 人倫道義는 義를 따라 不義를 치고 共 善을 爲하여 不義理를 부수 버렸다. 正義를 달리는 결 심에 脆弱한 侵攻도 많았 지만 勇猛한 應戰으로 물리 치고 勇固한 自我世界를 守 護함에 全力을 기울였다.

會 員 現 況('94年度 豫備役 同門名簿 參照)

期 別	轉 役 者			期 別	轉 役 者			期 別	轉 役 者		
	國 內	海 外	總 數		國 內	海 外	總 數		國 內	海 外	總 數
1	42	15	57	14	41	1	42	27	14	1	15
2	89	23	112	15	37	4	41	28	7	0	7
3	92	20	112	16	32	3	35	29	8	0	8
4	72	8	80	17	32	3	35	30	8	0	8
5	111	17	128	18	39	2	41	31	5	2	7
6	49	8	57	19	40	4	44	32	2	0	2
7	66	9	75	20	35	3	38	33	4	0	4
8	63	4	67	21	27	3	30	34	1	0	1
9	46	9	55	22	36	1	37	35	11	0	11
10	49	1	50	23	27	0	27	36			
11	50	4	54	24	29	0	29	37	12	1	13
12	41	7	48	25	29	0	29	38			
13	48	0	48	26	21	3	24	合計	1,315	156	1,471

五 星 會 任 員 名 單 ('95. 5. 現 在)

期	副 會 長	理 事			
1		(一期會長 趙長成)			
2	全 昌 祿	沈 載 胤	李 元 甲	朴 文 基	劉 翁 燮
3	崔 恒 基	嚴 龍 植	金 種 勳	高 承 萬	金 慶 福
4	韓 英 奎	朴 雄 鎮	申 東 滿	鄭 樂 永	崔 俊 植
5	全 潤 壽	李 炳 稷	朴 炳 九	朴 鎔 泰	李 在 雨
6	朴 根 泰	李 潤 雨	李 義 宰	全 春 雨	李 游 國
7	郭 永 達	朴 滿 葉	姜 尙 遠	金 仁 壽	吳 學 秀
8	安 昌 明	田 順 培	洪 永 奎	金 道 植	李 俊 永
9	高 仁 珪	韓 光 熙	蔡 己 權	徐 哲 洙	金 相 台
10	金 秉 台	李 康 柱	金 鋌 鎬	文 聖 根	朴 承 玉
11	李 泰 植	明 英 男	金 鈺 冑	申 炳 和	安 柄 汶
12	康 英 植	朴 德 熙	金 永 雄	金 永 植	崔 大 植

※ 會費納入後 交替者：3期 李仁行, 5期 尹春鉉, 6期 崔鎬根
會費基準：期生會 200,000원, 副會長 200,000원, 理事 100,000원

◎ 前現職參謀總長 特別贊助金 各 1,000,000원

尹子重, 李喜根, 金相台, 金仁基, 徐東烈, 鄭用厚, 韓周煥, 李鎔鎬, 金鴻來

◎ 其他 自進納付 贊助金

柳發浩(2期) 30萬원, 金三溶(3期) 5萬원, 姜京得(14期) 20萬원, 全大禹(12期) 2萬원, 卞熙龍(21期) 5萬원
總額 19,413,000원(移越金 993,000원 包含, 會費 理事 2名 未納)

長期預金 18,883,000원, 3回 分割入金時 21,000원, 電話架設時 500,000원(有價證券), 현금 9,000원

◎ 朴會長 運營支援金 25,000,000원으로 1年間 運營活用 ※ 구좌번호(조흥) 372-04-208760 박재성

國內外 支會長	
N.Y 李鍾弼 (2期)	H.(908)494-0345 B.(212)233-1399
L.A 崔長龍 (2期)	H.(310)821-7568 B.(213)626-1645
大邱 朴炳達 (3期)	(053)653-2491
光州 李相京 (6期)	(0612)73-2287



◀ 五星會 旗



現 各部隊 文鎮 ▶

祝 發 展

<p>LOTTE CANON(株) 社長 金正麟 (空士 1期) 電話: 557-6102</p>	<p>玄宇開發(株) 會長 朴載誠 (空士 2期) 電話: 785-0974</p>	<p>標準綜合建築社 代表 劉翁燮 (空士 2期) 電話: 741-3151</p>	<p>KOREA HERALD 社長 金振億 (空士 2期) 電話: 752-1137</p>	<p>菱韓 電子(株) 社長 趙日東 (空士 2期) 電話: 780-9923~4</p>
--	---	---	--	--

五星會 第二期年度

業務經過

- '94. 6.30(木) 朴載誠(2期)會長 當選
- 7. 4(月) 臨時 事務室
 - 永登浦 地下商街 管理室 活用
- 7. 5(火) 各期副會長 會同伴 連絡
- 7. 6(水) 各期生會長 電話로 人事 및 對話
- 7. 7(木) 基本事務用品 購買
- 7.12(火) 副會長 會議
- 7.13(水) 事務室件 解決通報 接受
- 7.14(木) 보라매 會館 訪問
- 7.19(火) 前會長(孫周鉉)으로부터 業務引受
- 7.21(木) 朝興銀行 通帳開設
- 7.22(金) 朴載誠會長의 運營支援金, 1,500萬圓 受領
- 7.26(火) 事務室 電話架設 申請(노란진 전화국)
- 7.29(金) 行政用 봉투(大, 中, 小) 注文
 - 朴會長 張麟淳(1期) 弔問
 - 金振億 KOREA HERALD 社長 就任 祝賀
- 8. 6(土) 鄉軍組 第919號
 - 第46周年 國軍의 날 行事 參觀者 名單 提出 文書 接受
- 8. 8(月) 前記名單 提出次 鄉軍會館 訪問
- 8.11(木) 空軍福祉團 訪問
 - 事務室 補修計劃 觀察
- 8.17(水) 五星會會長, 施設監, 福祉團長 會同
 - 1. 忠魂塔 建立件
 - 2. 五星會 事務室 補修와 什器類
 - 3. 飛行殉職者 名單件
- 8.20(土) 空本人參部長과 通話 殉職者 名單 依頼
- 9. 5(月) 五星會 任員會議 空軍會館
- 9.15(木) 事務室 備品, 什器 受領
 - 양수책상 3, 의자 3
 - 캐비닛 3, 책장 3
 - 서류함 3
 - 응접세트 1조
- 9.16(金) 空士校 訪問 空士校全京寫眞 依頼
- 10. 1(土) 第46周年 10. 1行事 參觀
 - 高承萬, 崔俊植, 羅承順
- 10. 5(水) 韓國航空振興協會 세미나 參席
- 10.17(月) GOLF大會 賞品, 紀念品(Tropy 7, 타울 80세트) 引受
- 10.18(火) 各種寄贈品에 證票 附著
- 10.20(木) GOLF大會 招請狀 發送
- 10.29(土) 親善 GOLF大會 K-16 47名 參加
- 11. 2(水) 空軍士官學校 同門會員名簿 受領
 - 前·現職 參謀總長에게 贊助金 依頼 文書發送
 - LA. NY. 大邱 分會長 指名과 會則, 人事狀 發送
 - LA. 崔長龍(2期)
 - NY. 李鍾弼(2期)
 - 대구 朴在勳(2期)

- '94.11. 5(土) 金正麟(1期) LOTTE CANON 社長으로부터 XEROX 1台 受領
- 11.13(日) 李鍾萬 少將(9期) 死亡
 - 弔旗, 弔花 持參 弔問
- 11.15(火) 馬鍾仁 大領(1期) 病問安
- 11.23(水) 准友會에서 大型 벽거울 寄贈
- 11.24(木) 朴載誠會長 運營支援金 1,000萬圓 追加
- 12. 1(木) 五星會 看板 製作 注文
- 12. 7(水) '94年度 理事會 開催 通報
- 12.12(月) 은나래會 바자회
 - 會長 Tape Cutting 參席
 - 적려금 30萬圓 傳達
- 12.15(木) 理事會. 空軍會館
- 12.21(水) 贊助金. 任員會費 1,300萬圓 長期積金
- 12.26(月) 各 支會長에게 理事會 油印物 送付
- 12.28(水) 李完益(3期) 死亡 問喪
- 12.29 獲靚. 火葬
- 12.30(金) 盧炳夏(5期) 死亡 問喪
- '95. 1. 1. 發軔
- '95. 1. 6(金) 五星會 懸板 行事
 - 1. 9(月) 空軍全部隊에 部隊象徵物(文銀 等) 依頼
 - 1.10(火) 五星會紙 發刊認可 依頼-人參部長
 - 1.18(水) 忠魂塔 建立 및 其他公知事項 發送
 - 2. 5(日) 前空士校 全京寫眞(鎮海, 大方洞) 依頼-空士校長
 - 2.10(金) 五星會 常任副會長으로 朴雄鎮(4期) 任命
 - 2.22(水) 長期積金 500萬圓 追加入金
 - 2.24(金) 故 李完益 大領 國立墓地 安葬式에 參席
 - 2.25(土) 五星會紙 原稿依頼(38名)
 - 3.13(月) 監查牌 14個 引受
 - 3.15(水) 金根桓 將軍 中大附屬病院에서 報勤病院으로
 - 3.21(火) 1. 金慶福 3期 會長에게 次期 五星會 會長 內定 要請 文書
 - ① 五星會紙 原稿 依頼
 - ② 前空士校 全京寫眞件
 - 4.10(月) 富京實業 訪問
 - 柳鏞浩 社長(2期)에게 感謝牌 傳達
 - 4.12(水) 金正麟(1期) 社長에게 感謝牌 傳達
 - 4.26(水) 在鄉軍人會 定期全國總會 參席
 - 金東皓 將軍 在鄉軍人會 事務總長 就任 祝賀 花環 傳達
- 5.10(水) 空士 訪問
 - 1. 前空士校全京 寫眞 引受
 - 2. 五星會 消息紙 印刷依頼(교재창)
- 6. 9(金) 會長團 會議(空軍會館)
- 6.30(金) 定期總會



五星會 懸板('95. 1. 6)



五星會 弔旗

會員死亡時 本會에 連絡하면 即時 運搬 奉呈해 드립니다. (直系家族 包含)

豫定 事項

祝 發 展

永五企業(株)

社長 李榮壽 (空士 2期) 電話: 782-1707

韓國航空(株)

社長 李元甲 (空士 2期) 電話: 663-4208

富京實業(株)

社長 柳鏞浩 (空士 2期) 電話: 277-2251~4

韓日交易(株)

會長 金慶福 (空士 3期) 電話: 032-571-3361

南星企業(株)

社長 李仁行 (空士 3期) 電話: 322-1986

感謝牌 對象者

Table with 3 columns: 姓名, 職業과職位, 出身期. Lists names like 金正麟, 孫周鉉, 劉翁燮, etc.

事務室 備品 및 什器 寄贈者

Table with 3 columns: 品名, 數量, 寄贈者. Lists items like 양수책상, 의자, 캐비닛, etc.

會員 殉職者 現況(空本 統計)

空軍 總死亡者 476名('94.8.27 現在)

空士出身 181名

Table with 8 columns: 期, 數, 期, 數, 期, 數, 期, 數. Shows statistics for 1-8 periods.



高 承 萬(3期)

小生은 지난 1年間(1994.7.4~1995.6.30) 本會의 事務總長이라는 分數에 넘치는 職務를 擔當해 왔습니다.

不滿이 많은 듯 합니다. 五星會라는 이름은 2·3·4期가 鎭海에서 生徒時節에 命名된 것으로 小生 自身도 愛着感이 있고 別異意가 없으나 大方洞에 入校한 8期以後의 同門들은 大體의으로 不滿인 듯 합니다.

는 空士校를 聯想하게 하는 最高의 名稱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再考의 餘地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運營資金 問題입니다. 會則에도 第6章 第21條에 1. 本會 任員의 年會費 2. 全會員의 基本會費(年會費 또는 一時會費) 3. 特別贊助金 등으로 明記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本會 事務室을 各

期別 動向把握의 中心役割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으로 期別 卒業 ALBUM을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2·3·5·6期の 것은 모여져 있으나 餘他期는 寄贈者가 없어서 漠然할 따름입니다. 可及的 빠른 時日 內에 寄贈해 주기 바라며 또한 期別로 關合 親睦을 圖謀하기 爲한 集會(會議·運動大會·野遊會·山馬會·GOLF·낙시 등)가 있었다면 그 日時와 場所 參加範圍 그리고 可하다면 寫眞을 보내주신다면 期別動向 Scrap Book을 만들어 보고 隨時訪問하는 會員들이 閱覽함으로써 同期는 勿論 先·後輩期의 動態를 알 수 있고 同時에 本會와 期會間에 紐帶가 致假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로 本會會長 選出基

準 基準에 關한 問題입니다. 40餘年間 事務室도 없었으나 昨年 9月에 事務室을 마련하고 現 朴會長의 私財拂入資金으로 本會의 基盤을 創出하고 希冀한 出費을 하고 있는데 次期부터도 果然 지금과 같은 狀況이 維持될 것인지 壯談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會長의 資格基準을 들어본다면 첫째로 人品과 能力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로 本會를 發展시키려는 熱誠의 意志, 셋째로 財力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境遇에 따라서는 첫째와 둘째 要件이 最上인데 財力이 不足한 境遇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그런 경우라면 그 期生 全員이 一心同體가 되어 資金의 뒷받침을 함으로써 可能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祝 發 展

Grid of 6 boxes containing names and titles of member organizations: ROHM KOREA(株), 亞星企業(株), 韓國航空振興協會, 仁川大學校, 韓國航空宇宙研究所.

國家安保와 國民의 意識構造

全 潤 壽
(5 期)

1. 韓半島 周邊情勢의 不安定
2. 北韓의 誤判과 挑發可能性
3. 戰爭의 慘狀
4. 國民 安保意識 強化

1. 韓半島 周邊情勢의 不安定

오늘날 國際情勢의 潮流는 和解와 協力의 時代潮流인 듯하다. 지난 半世紀 동안은 超強大國인 美蘇가 主軸으로한 兩極體制로 區分되어 全面封鎖와 局地突破로 衝突과 緊張의 連續性을 지키면서 不安한 平和를 維持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兩極體制의 崩壞로 強대國의 影響力이 極度로 弱화된 틈을 타서 宗教的 葛藤噴出과 國家間의 理解相衡 등으로 局地紛爭은 오히려 增加되고 있는 現狀을 보이고 있다. 그 좋은 예가 中東에서 發生한 걸프戰爭과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앙골라事態 그리고 아프간, 캄보디아事態 등이다.

韓半島의 周邊情勢는 理念紛爭의 終着點이 된 것처럼 4大 軍事強國이 머리차려 韓半島의 利益을 保護하려는 強대國들의 틀바구니 속에서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不確實性의 情況이다. 그러므로 韓半島는 冷戰體制의 마지막 地域으로서 世界人의 注目を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東西理念의 마지막 對決場인 韓半島 問題는 利害當事者인 南北韓이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고있는 4大 軍事強國에 對하여 緻密하고 水準 높은 外交力량을 發揮해야 할 時機가 바로 지금이라 確信한다. 外交難題로 非常한 關心을 보여왔던 北美 核協商이 妥結됨으로써 우리 政府가 餘格있게 北韓 原子力 施設의 特別查察과 輕水爐 支援問題를 다루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北美 外交窓口 開設 協議와 北美間 平和協定 推進을 加速化시키기 爲하여 中國의 停戰書 撤收를 協議 實現함으로써 韓美 兩國를 當感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北美核協商 過程에서도 韓半島 問題 利害當事國인 韓國이 參與 못하는 外交的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對北政策은 一貫性을 잃은 듯한 印象을 國民들에게 주고있는 反面 北韓은 南北對話와 交流를 拒否한 채 北韓式 社會主義 基調에서 벗어나고 南北關係 改善에 一切 應하지 않을 것을 分明히 하고있는 一絲不亂한 姿勢인 듯하다.

2. 北韓의 誤判과 挑發可能性

最近 北韓은 南北對話를 拒否한 채 內部 속애틀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一時 對南 宥和政策을 標榜하면서 南北韓 UN 同時加入, 北美 核協定 妥結, 北美白條交 推進等 周邊情勢 흐름에 맞게 變化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그들의 一時的인 態度 變化는 그들이 一貫되게 追求하여온 對南赤化 戰略의 本質的인 變化에서 온 것이 아니라 國際情勢 變化에 副應하기 위한 戰術的인 步 그들의 基本戰略을 一時 舍기기 위한 處方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들은 東歐國의 崩壞를 目擊하면서 우리 的全方位 外交政策으로 인한 그들의 外交的인 孤立에서 벗어나고 經濟的 어려움을 打開하기 爲해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移入하고자 하는 背肉之計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저명한 軍事 專家들은 걸프전을 거치면서 UN의 仲裁로 中東에 平和가 定着되면 그 다음의 戰爭可能 地域은 分明히 韓半島가 될 것으로 豫見하고 있는 듯하다. 그 理由는 첫째로 共產圈의 開放과 改革의 물결이 北韓이라고 해서 避할 수 없으며 그들이 버티는 데도 限界가 있다는 것이 더욱 深刻한 問題로 燦頭되고 있다. 지난 半世紀 燦頭되던 過度한 軍事費를 支出하여 軍事強國을 建設했으며 北韓이 地上樂園이라는 그릇된 認識을 北韓 住民들에게 심어왔기 때문에 開放을 한다면 東歐國의 一部國家들처럼 悲慘한 最後를 맞이 할 것이 너무나 分明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軍事力의 優位를 維持하는 側面에서 보더라도 時間이 흘러 갈수록 南北韓間의 國力隔差가 極甚하게 벌어지고 그 동안 軍事力의 優位維持에서 劣勢의 軍事力 維持가 豫見되며 武器와 裝備도 漸次 老朽化 되어 稼動率이 떨어져 不利해 진다는 데도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 北韓은 그들의 劣惡한 經濟事情에도 불구하고 GNP의 20% 내지 25%를 軍事費로 充當하고 軍事費의 45% 내지 50%를 威力增強에 投入하고 있다. 스킨드 미사일의 性能改良, 化學武器 量産과 核武器 開

發을 推進하는 등 一貫되게 戰力增強을 推進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赤化南侵 戰略이 不變임을 立證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北韓은 優越한 空軍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DMZ 北方 100km 以內에 精銳空軍力 65% 乃至 70%를 前進配置하고 亂配置置線에서 一步도 移動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奇襲攻擊이 可能하다. 現代戰에서 奇襲的인 第一擊의 威力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初戰에 北韓의 奇襲攻擊에 對한 迅速對應으로 戰勢를 挽回하지 못한다고 하면 北韓이 意圖한대로 쉽게 赤化統一이 可能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로, 韓國의 左傾勢力들이 아직도 金日成 主體思想에 立脚한 共產革命을 固守하면서 組織的인 鬥爭을 繼續하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이 先制 奇襲攻擊을 敢行할 경우 韓國內 左傾 革命勢力들이 同時에 蜂起할 것으로 豫見하고 있다. 北韓이 企圖하고 있는 2:1戰略이란 主勢力이 北韓의 軍事力이며 補助力 勢力이 韓國內의 左傾 革命勢力로서 有事時 韓國國內 사이에 두고 앞과 後方에서 揆攻함으로써 쉽게 韓國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目標을 쉽게 達成할 수 있다고 믿는 戰略이다.

3. 戰爭의 慘狀

不問問 우리 國民의 大部分은 戰後世代로 構成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戰爭의 慘狀을 經驗하지 못했거나 잊고 가고 있는 世代이다. 그들은 전쟁의 慘狀을 어느 정도 理解하고 있을까 甚히 걱정되는 바 크다. 우리 國民이 戰爭을 잊지않고 徹底히 對備하였을 때만이 戰爭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며 戰爭을 잊고 對備疏忽할 때 戰爭은 우리곁에 다가온다는 教訓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民族은 開國以來 930余回의 侵略戰爭을 甘受해야 했고 5천여년의 歷史를 道하여 每 5年마다 한번 꼴의 侵略戰爭을 받아온 受難의 經驗을 갖고 살아가는 民族이다. 아직도 우리 記憶에 생생한 韓國戰爭時 200萬名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負傷을 당하여 지금도 病床에서 呻吟하고 있으며 産業施設의 45%가 破壞되었고 國家財産 被害는 220億에 達했다.

그러나 지금이 時點에 戰爭이 再發한다면 武器密度는 韓國戰當時와 比較하여 15배이며 破壞力은 5배 以上이므로 75倍 以上의 戰爭被害가 생긴다는 算術的인 計算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人

이 목숨을 잃고 또 얼마나 많은 財産이 破壞되는지 想像할 수 록 끔찍한 일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北韓의 核武器 開發 保有라 생각된다. 核武器를 先制 奇襲攻擊을 받는다고 하면 戰爭은 奇襲攻擊과 同時에 끝장이며 1메가톤의 核彈이 大都市를 強타한다고 하면 200萬名 乃至 250萬名이 瞬息間에 殺傷된다는 科學者들의 證言이다. 이 얼마나 可恐한 만한 戰爭의 慘狀이 展開될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核戰爭이 일어난다고 하면 南北韓 어느쪽이 勝利하든 無意味한 것이며 實事上 戰勝을 얻는다고 해도 全國士가 焦土化되고 全國民이 慘傷된 狀態에서 戰爭의 勝利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代價를 치르는 限이 있더라도 戰爭만은 미리 막아야 하며 戰爭을 막는 길은 온 國民이 戰爭의 慘狀을 理解하고 徹頭徹尾 對備하는 길 만이 最善의 길임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4. 國民 安保意識 強化

“우리도 잘 살아 보자” “하면 된다”고 하는 國民的인 合議로 經濟建設에 國民의 知慧와 힘을 集約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經濟는 一人當 國民所得이 7,300弗水準에 있으며 向後 7%의 經濟成長이 持續된다면 今世紀 末頃 또는 21世紀 初에는 一人當 國民所得이 15,000弗級에 到達함으로써 名實相符合에 先達國 隊列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經濟專家들의 一致된 意見들이다.

또한 南北韓間의 國力隔差의 深化, 北韓의 軍事力 廢喪喪失, 金日成 死亡後 後繼體制 構築 後遺症과 金正一의 카리스마의 限界性 그리고 時代的 潮流인 改革과 開放을 頑強히 外面하는 데 結果로 惹起되는 副作用等이 南北關係 改善을 活潑하게 推進시킬 수 있는 要因이 되리라 믿어진다. 平和의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에서 軍事力 均衡을 維持하면서 戰爭을 抑制하는 길 밖에 없으며 戰爭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強力한 軍事力이 建設되어 그 維持가 先行되어야 可能하다 하겠다.

大陸 優位の 軍事力 建設을 爲하여 政府는 總豫算의 1/3을 防衛費에 投入함으로써 質的, 量的面에서 크게 解消시켜 왔으며 그 結果로 休戰以後 北韓의 끊임없는 挑發에도 柔軟對應하여 戰爭을 阻止抑制하여 왔다고 確信한다. 그러나 戰爭은 軍事 및 外交力과 經濟力만으로는 抑制할 수 없다고

믿는다. 政府와 軍 그리고 國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戰爭에 對備하고 必要하다면 一戰도 不辭한다는 國民的인 決意가 確固할 때만이 可能한 國家의 大事이다.

韓半島의 平和共存이나 平和統一에 對한 性急한 期待는 오히려 混亂을 自招하고 統一의 길을 멀게 하고 戰爭을 불러들여 주는 罠을 犯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休戰線 近處에 200萬名에 가까운 軍事力이 對峙하면서 지금까지 韓半島 赤化統一 戰略을 한 瞬間도 拋棄하지 않고 虎視眈眈 南侵機會를 노리고 있는 北韓의 軍事力 危險 앞을 살고 있으며 非正常的인 指導者의 妄想과 誤判으로 戰爭이 일어날 수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걸프戰爭을 통하여 世界에서 가장 잘사는 國家인 쿠웨이트가 國力에 對한 理解하고 徹頭徹尾 對備함으로써 敵의 侵略으로부터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反面 中東의 孤兒이며 아랍國家들에게 包圍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아랍 強대國들을 相對로 軍事對決을 통하여 國家의 生存을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은 國民의 精神武裝과 強力한 軍事力을 維持하고 있기 때문이라 確信한다. 強대國들의 膨脹緩和과 軍備縮小 寡國化에 고무되어 性急한 軍備縮小을 提起함으로써 지난 半世紀 동안 冷戰體制下에서 鞏固히 다져온 우리의 總力 安保 態勢가 쉽게 退色될까 念慮되는 바 크다. 지난 五千年 우리 歷史를 뒤돌아 볼 때 韓半島는 우리 國民들의 選擇과는 關係없이 強대國들이 主導하는 情勢에 影響을 받아 많은 受難을 겪어 왔다. 지금 世界는 美國 主導로 새로운 國際秩序 構築에 餘念이 없는데 새로운 國際秩序 構築過程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韓半島 問題가 새로운 國際秩序에 影響을 받아 또 다시 불꽃이 戰爭의 歷史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國際秩序가 韓半島 問題 解決에 有利하다면 平和의 榮榮을 이룩하는데 強力한 軍事力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時代的 召命을 軍은 賦與하고 있기에 軍의 任務는 어느 때보다 莫重하다 하겠다. 따라서 軍은 自負心과 使命感을 갖고 國際的인 大業完遂에 總進軍해야 할 것이다.

美國 東部地域 會員 名單

CLASS	NAME	HOME PH. ADDRESS	BUSINESS PH.
1	Kim Do Young	(201)533-1799 44 Rockledge Drive Living ston, New Jersey, 07039	
	Pai Jong Young	(410)750-9925 8591-G Falls Run Road Ellicott, Md., 21043	
	Park Hee Kyoo	(301)774-0389 18604 Hedgegrove Terr.01ncy, Md., 20832	
2	Kang Sung Won	(613)283-6405 69 Vincent Street Smith Fall, Ontario, Canada K7A4W3	
	Kang Yong Nak	(416)535-2287 434 1/2 Colledge Street Toronto, Canada	
	Kwak Kee Sin	(404)633-0802	
	Lee Chong Pil	(908)494-0345 49 Lynnwood Road Edlson. New Jersey, 08820	
	Song Young Doo	(804)272-4599 (804)780-2424 201 Aldersmead Road Richmond, Va. 23219	
3	Choi Soon Suk	(718)494-7147 23 Wyona Ave. Staten Island, New York, 10314	
	Chun Eun Yul	(312)272-2647 2663 Saicnga Drive North Brook, IL. 60062	
	Jo Ki Joo	(704)542-6313 4400 Camel Road Chartte, N.C.,28211	
	Kim Jong Kuk	(914)967-2585 77 Dearborn Ave., Rye, New York, 10580	
	Kwon Do In	(609)267-5320 B-3 Tudor Court, Mt. Holly, New Jersey, 08060	
	Lee Hee Yong	(703)893-5841 1919 Anderson Road Falls Church, Va., 22043	
	Lee Yong Woo	(517)321-5124 1306 Peper Hill Drive Lansing Mi.,48917	
	Moon Byong Sun	(215)628-9716 1716 Waterford Way Maple Glen, Pa., 19002	
	Park Yoon Jin	(617)275-4632 106 Pine Hill Road Beford, Ma.,01730	
4	Yoo Hyun Joo	(215)224-1524 6727 North 5th Street Philadelphia, Pa.,19126	
5	Choi Ik Soon	(201)935-8367 234A Paterson Ave., East Rutherford, N.J.,07073	
	Kim Hee Dong	(919)488-0675 (919)864-3848 1342 Chilton Drive Fayetteville, N.C., 28304	
	Lee Dae Woo	(703)590-1887 (703)349-5930 4309 Marquis Place Wood Bridge. Va., 22192	
	Lee Pil Man	(514)935-7006 01300 At Water Montreal, Quebec, Canada, H3K9Z7	
	Park In Chac	(416)229-0540 225 Connaught Ave. North York, Ontario, Canada, M2M1H6	
	Park Jin Sook	(610)526-9757 (215)229-9550 514 Fishers Road Bryn Mawr, Pa. (804)288-5468 (804)255-8697	
6	Chung Soon Kyoo	529 Greene Ridge Road Richmond, Va., 23229	
	Hong Soon Ju	(513)746-6410 (609)427-9518 3494 St. Rt. 741N Lebanon. oh.,45036	
	Yoon Dong Hee	(609)427-9518 (215)739-3234 1747 Country Club Drive Cherry Hill, N.J.,08003	
7	Choi Kyung Jin	(804)672-1032 (804)225-8697 10311 Attens Way Glen Allen, Va., 23060	
8	Kay Yung Suk	(301)593-1723 (301)589-4065 11625 Swaing Lock Terr. Rockville, Md., 20854	
	Kim Seung Suk	(213)254-6222 (213)225-7614 4468 Wawona St., L.A., CA 90036	
	Lee Hee Kun	(619)345-0733	
	Lee Kyung Chul	(415)948-6783 11610 Dawson Dr., Los Altos, CA 94024	
	Ma Jong In	(818)249-3012 2900 Fairway Ave., La Crescenta, CA 91214	
2	Choi Jang Yong	(310)821-7568 (213)626-1645 7711 W.82nd. St., Playa Del Rey, CA 90291	
	Hong Du Pyo	(619)484-9243 12593 Salmon River Rd., San Diego CA 92129	
	Park Ho Kun	(714)855-0228 25181 Costeu Dr., Laguna Hills, CA 91364	
	Song Kwang Hyun	(213)382-7369 404 Shatto Pl., #337, Los Angeles, CA 90020	
	Won Byung Sik	(714)281-0675 7769 E. Rainbow Ct., Anaheim, CA 92808	
3	Cho Young Kern	(818)346-9919 20145 Delita Dr., Woodland Hills, CA 91364	
	Park Byun Yang	(714)827-4589 7090 Monroc Cir., Buena Park, CA 90620	
	Park Kyung Won	(619)771-0018 (619)347-3238 49-420 Via Pompa Cir, La Quinta, CA 92253	
	Song Tae Ik	(310)538-1171 1328 Magnolia Ave. #C, Gardena, CA 90427	
4	Hong Yeon Yong	(818)790-8009 (213)937-3908 1112 Fair View Dr., La Canada, CA 91011	
	Lee Kyu Sung	(714)537-1974 11902 Seacrest Dr., Garden Grove, CA 92640	
	Ohn Sung Chul	(310)320-2771 (310)549-4210 22342 Harborridge Ln., #1, Torrance, CA 90502	
5	Cho Hi Chang	(818)363-5710 (213)256-1378 15891 Pilgrim Cir., Huntington Beach. CA 92647	
	Kim Dong Sup	(818)363-5710 (213)256-1378 5004 Figueroa, Los Angeles, CA 90042	
	Kim Se Duk	(818)285-0633 8841 Longdon, Temple, CA 90250	
	Kim Yong Man	(310)643-8730 (310)673-2967 5321 W. 136th St., Hawthorn, CA 90250	
	Koo Jae Wook	(213)735-5419 (213)513-8931 11 Indian School Ln., Carson, CA 90745	
	Oh Bong Yul	(213)371-3715 4446 W. 168th St., Lawndale, CA90260	
	Park Moon Ki	(310)451-3057 (310)452-0996 628 18th St., Santa Monica, CA 90402	
	Sir Ung Sirk	(818)989-4189 13335 Aetna St., Van Nuys, CA 91401	
6	Kim Hong Sik	(714)537-3002 (714)963-5331 1162 Luzon St., Cypress, CA 90630	
10	Kim Su Duk	(714)670-1915 (310)435-4515 8552 Linds Rd., Buena Park, CA 90621	
11	Choi Kwon Mook	(714)579-0601 (714)835-6840 2079 Baymeadow Dr., Placentia, CA 92670	
	Lee Joon Sik	(619)946-0130 (619)242-2557 14280 Palmico, Apple Valley, CA 92307	
	Lee Tong Jin	(310)378-6845 (310)791-0021 3711 W. Lomita Blvd, #200, Torrance, CA 90505	
	Nam Hui Su	(909)735-2815 1150 Zircon St., Corona, CA 91720	
14	Kim Sang Bac	(619)465-7653 8622 Robles Dr., San Diego, CA 92119	
15	Kim Kun Sam	(818)347-6744 10650 Reseda Blvd., Northridge, CA 91326	
16	Chin Il Pom	(310)541-9873 (213)747-6566 1448 Via Castilla, Palos Verdes Estates, CA 90274	
18	Yom Dong Jin	(909)598-4387 21304 Spring St., Walnut, CA 91789	
26	Park Sik Rae	(714)579-0579 (714)732-3465 1255 Galway St., Placentia, CA 92670	

美國 LA 地域 會員 名單

CLASS	NAME	HOME PH. ADDRESS	BUSINESS PH.
1	Baek Ju Hyun	(213)931-2282 (213)934-9243 430 S. Burnside Ave. #6F, L.A., CA90036	
	Choi Jin Sul	(408)649-4368 (916) 689-2894 25320 Boots Rd., Monterey, CA 93940	
	Choi Han Ik	(818)355-7362	
	Cho Suk Pok	(916)689-2894	
	Kim Nak Ku	(714)494-0519 (714)673-7726 801 E. Balboa Blvd, New Port, CA 92661	
14	Kim Sang Bac		
15	Kim Kun Sam		
16	Chin Il Pom		
18	Yom Dong Jin		
26	Park Sik Rae		